

교회 소식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린 문으로(계 3:7-8)" 우리 마음과 눈의 문이, 삶의 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매일 저녁 9시 김동수 장로님과 환우들을 위해, 나라들과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음을 합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동안 매일 저녁 9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몽크 교회 다락방을 열어두겠습니다.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경구절들을 뽑아 인쇄해 안내 테이블에 비치했습니다.
- 오늘 친교를 섬겨주시는 최은정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민흥기 집사 (시 62:5-12)
- 1월 안내: 강승연 집사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00pm, YouTube
English Service: 2:00pm, Zoom
토요새벽기도: 6am, 아몽크 본당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2:00pm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2:00pm, Zoom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939 020 5125/Passcode: Sk (EM/Youth)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장효종 / **반주자:** 이현주

기도

예수님께 활짝 열어 모셔드린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하나님 은총의 징표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 불의와 탐욕,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나라들을 다스리시도록
- 캄보디아 Paul Lee, 터키 Joshua Kavak, I 국 장영호, 혼두라스 최문재, 베트남 김승훈, 크로아티아 순돈호,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 WEC 코리아 이정석,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

제24권 2호

2024년 1월 14일

<2024년 문어>

열린 문으로

(요한계시록 3:7-8)



주소: 448 Bedford Road, Armonk, NY 10504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뉴욕세광고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2:00pm> Presi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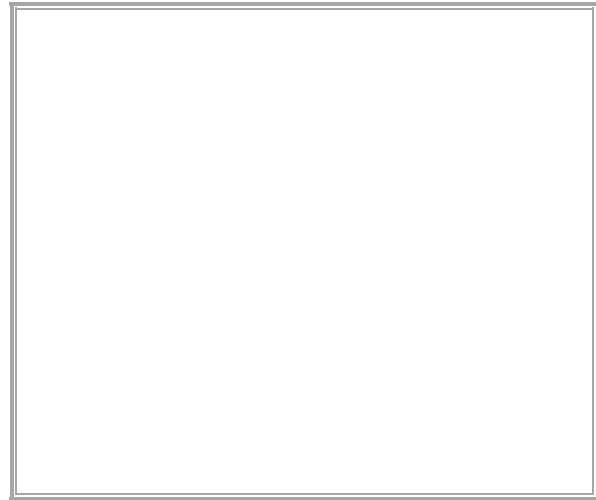
Prayer----- Pastor Edwin

Word of God-----**Heb 10:19-22** -----Pastor Edwin

Sermon ----- **“Draw Near to God”** - Pastor Edwin Kim

Reflection Prayer----- Together

Lord’s Prayer ----- Together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위한 기도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예배로의 초대 --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함께

Call to Worship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10(34) “전능왕 오셔서” -----다함께

Hymn 28(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266(200)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대표기도 ----- 시편 131:1-6, 13-18 ----- 노미라 집사

Prayer

찬양대----- “주를 찬양하라” ----- 세광찬양대

Choir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창 1:26-28,31; 2:19,23-25; 3:6-9,15,21** ---인도자

Word of God

설교 ----- “네가 어디 있느냐” ----- 이민영 목사

Sermon

인사 및 광고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433(490)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다함께

Hymn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오늘의 말씀

네가 어디 있느냐 (창 1:26-28,31; 2:19,23-25; 3:6-9,15,21)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존귀함의 회복입니다. 나와 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명의 회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회복입니다. 첫 이야기입니다.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심히 좋은 창조의 정점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창조주의 지혜 능력 아름다움에 따라 피조물에 이름을 짓고,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경작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서로 완전하게 하여 형상을 완성하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산책하며 즐거워하실 만한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별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선악과는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동산 과실이 감사하지 않았고, 자기와 서로가 부끄러워 가렸으며, 하나님이 싫고 무서워 숨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찾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죄짓고 숨은 아담을 불러내 무화과 잎을 벗기십니다. 부끄럽게 하고 벌 주려는 게 아니라, 은혜의 가죽옷을 입히시려 함입니다. 본래의 형상과 사명,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시려고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회복하신 복된 소식입니다. 가리고 꾸미지 않아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존귀하게 하십니다. 물론 불완전하지요. 하지만 그 새 이름, 새 사람을 매일 새로 입고 우리의 삶을 가꿔가게 하십니다. 존귀한 형상과 함께, 이름대로 경작하는 사명도 다시 주십니다.

이제는 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전케 하는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일터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아름다움을 경작하는 곳입니다. 여전히 가시 엉켜있지만, 이제는 자기 먹을 것만 얻는 수고를 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수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도록,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회복하십니다.